



보도자료

2020. 9. 3.(목) 배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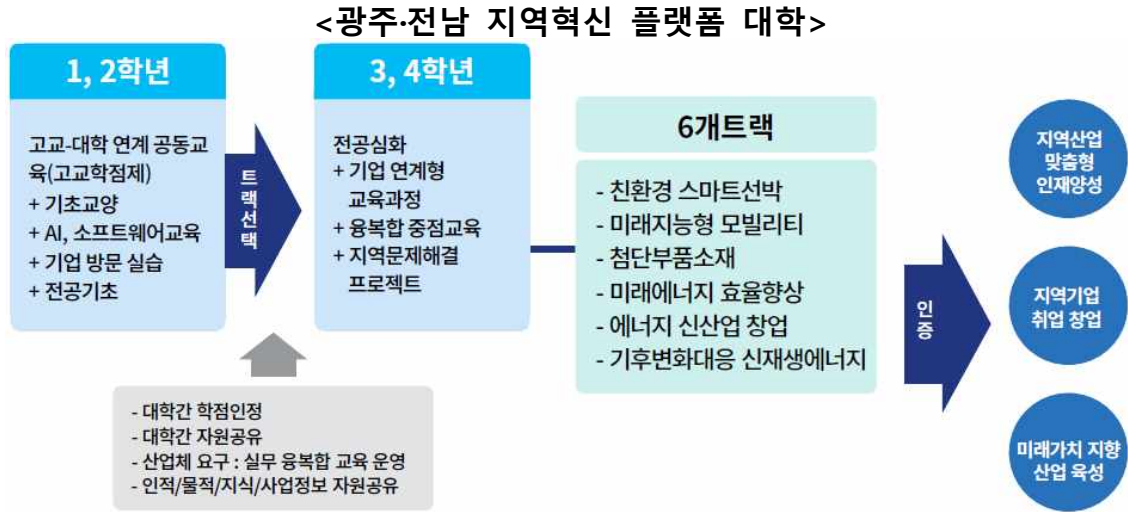


「지자체-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」 광주·전남 지역혁신 플랫폼 부총리 주재 영상간담회 개최

- ◆ 지역혁신주체 간 지역-대학 상생을 위한 대학교육혁신 방안 논의
- ◆ 지역혁신 추진 관련 현장의견, 규제혁신 필요사항 등 공유

- 교육부(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)는 9월 4일(금) 9시 50분, 「2020 광주광역시·전라남도 지자체-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플랫폼 영상 간담회」를 개최한다.
 - 부총리 주재의 간담회는 2020년 ‘지자체-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’에 최종 선정된 지역혁신 플랫폼을 대상으로, 경남(8.18.), 충북(8.20.) 순으로 실시하였으며, 마지막 순서로 광주·전남(9.4.) 지역에서 연다.
-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서울청사·광주시청·전남도청 간의 다원중계 영상회의로 진행하며, 지자체, 대학, 기업, 연구소, 교육청 등 지역혁신기관의 대표들과 더불어 대학생들도 함께 참여한다.
 - 이 자리에서는 광주·전남 지역혁신 플랫폼의 사업추진 방향과 단계별 이행안을 공유하고, 지역혁신주체들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는 등 지역인재의 정착을 지원하며, 4차 산업의 선도 지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혁신 방향도 함께 모색한다.
- ‘에너지신산업, 미래형 운송기기’를 지역의 핵심분야로 설정한 광주·전남 지역혁신 플랫폼의 주요 핵심과제는 다음과 같다.
 - 먼저 광주·전남은 15개 대학이 공동으로 표준교육모델을 수립하여 대학 간 교육과정 개방·공유의 기반을 마련하고, 이를 바탕으로 2021년부터 ‘지역혁신 플랫폼 대학(가칭)’을 운영할 계획이다.

- 광주·전남 지역혁신 플랫폼 대학은 지역 내 공공기관·기업 등과 함께 **교육혁신 협업모델**을 수립하여 맞춤형 인력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인증제를 도입하여 이수자의 취·창업을 지원한다.



- 예를 들어, 광주·전남이 에너지밸리 입주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고 3~4학년 대상 교육과정을 기업과 공동설계·운영하면, 한국전력공사 등 에너지 기업들은 채용 과정에서 이수자를 우대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.

□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“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두 지자체는 생활권을 공유하고 유사한 산업기반을 갖추고 있어 협업을 통해 더 큰 동반상승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.”라며,

- “앞으로도 서로에 대한 신뢰와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지역대학이 배출한 핵심인재가 지역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해달라.”라고 당부하였다.

- 【붙임】** 1. 2020 광주·전남 지역혁신 플랫폼 간담회 개요
2. 광주·전남 지역혁신 플랫폼 발표 자료



□ **개 요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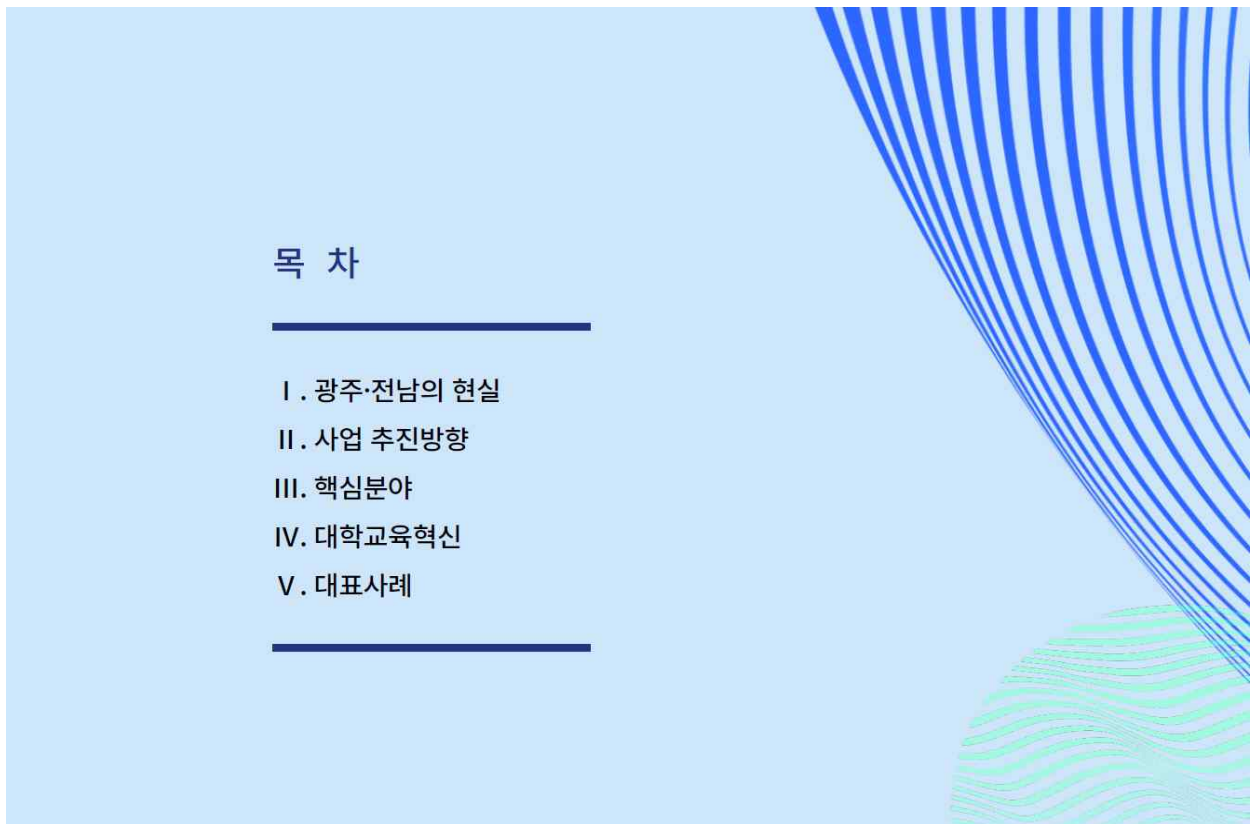
- (목적) ‘지자체-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’ 홍보 및 선정된 플랫폼의 핵심 추진내용 설명, 사업추진 관련 규제혁신 필요사항 등 현장의견 청취
- (일시) '20. 9. 4.(금) 9:50
- (방법) 서울-전남-광주 다자영상 간담회(공통기반 영상회의 활용)
- (장소) ①서울정부청사 1006호 회의실(주재회의실), ②전남도청 영상회의실(참여회의실), ③광주광역시 영상회의실(참여회의실)
- (참석인원) 총 20여명 (영상회의실마다 10인 이하 유지)
 - (서울) 부총리, 한국연구재단이사장, 국회의원 서동용·윤영덕 등 5명
 - (광주) 광주시장, 전남대총장, 광주교육감, 총괄운영센터장, 광주 테크노파크 관계자, 학생 등 7명
 - (전남) 전남도지사, 목포대총장, 전남부교육감, 현대삼호중공업·한국전력공사·광주전남연구원·전남테크노파크 관계자, 학생 등 8명

□ **세부 일정**

※ 사회 : 전남대 기획조정처장

시 간	내 용	공개여부	비 고
9:50~10:10 (20')	국민의례 및 인사말	○	부총리, 전남도지사, 광주시장, 전남대총장, 한국연구재단이사장, 국회의원 2명
10:10~10:30 (20')	사업계획 설명	○	총괄운영센터장
10:30~11:20 (50')	현장의견·건의사항 청취	○	자유토론

※ 협약체결은 간담회와 별도로 진행(서면) 예정



1. 광주·전남의 현실

지역경제기반 취약, 주력산업의 성장동력 저하



> 제조업기반 열악, 광주 GRDP 전국 15위, 전남 1인당 GRNI 전국 최하위



> 주력산업인 조선, 화학, 가전은 중국등 후발주자 부상으로 경쟁력 하향추세



1. 광주·전남의 현실

인구감소·고령화·인재유출 삼중고



- 최근 5년간(2012년~2017년) 광주·전남 인구 55,572명 감소

· 전남, 전국유일 "소멸위험 진입" 지역('18 고용정보원 조사)

- 고령화, 인구유출로 생산인구 감소

· 생산가능인구비율 66.2%, 전국최하위(전국 72.7%)

· 청년지역정착지수 호남권 61.6%(수도권 89.7%, 영남권 77%)



지자체-대학 협력기반의 지역혁신사업을 지렛대로 활용,
지역위기를 극복하고 「4차산업혁명시대의 선도지역」으로 발돋움



II. 사업 추진방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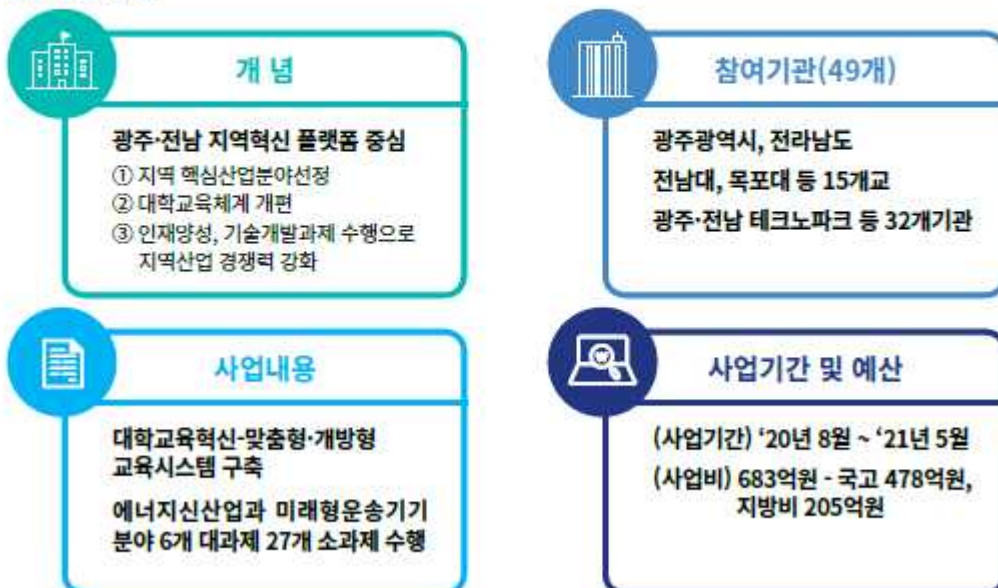
1. 비전·목표 및 전략



05

II. 사업 추진방향

2. 사업개요



06

II. 사업 추진방향

3. 광주·전남 지역혁신플랫폼



07

III. 핵심분야

1. 핵심분야 선정 및 이유

2대 핵심분야 선정 : 에너지신산업, 미래형운송기기 산업

- 지역산업여건분석, 대학의 혁신역량 파악, 지자체·혁신기관 의견수렴절차 이행
- 복수형으로 광주·전남의 연계·협력 시너지 효과 고려, 2대 핵심분야 선정

선정이유

에너지신산업

광주·전남의 미래를 이끌 새로운 전략산업

- 전남은 태양광, 풍력, 조류 등 천연에너지 자원을 활용, 에너지산업 집중 육성 (재생에너지 발전량 전국 1위)
- 광주는 스마트그리드, 태양광, 수소연료전지 등 원천기술 보유
- 빛가람혁신도시는 한전 이전 후 에너지밸리로 급부상
 - 지금까지 광주·전남이 함께 465개 기업 유치, 180개 입주
 - 한전공대설립('22년 3월 개교예정)으로 글로벌 에너지 인재양성 기틀 마련



08

III. 핵심분야

1. 핵심분야 선정 및 이유

선정이유

미래형운송기기산업
기존 자동차·조선기반의 신성장동력 산업

(광주) 기아차(연간 65만대 생산, 전국2위)기반
「친환경 스마트카 중심도시 조성사업」 추진

- 광주형일자리 완성차공장 (주글로벌모터스 설립(경형 suv 연간 10만대, 고용 1천명)
- 빛그린산단중심, 친환경 자동차부품 클러스터 조성('16~21년 / 3,030억원)

(전남) 친환경 선박, 드론과 e-모빌리티 산업을 신성장산업으로 육성

- 국내 제2의 조선해양클러스터 활용, 친환경선박설계 및 생산기반 구축 추진
- 드론은 '25년까지 기업 5배(54 → 270개)
고용 20배(170 → 3,400명) 확대
- e-모빌리티산업은 기업 7배(14 → 100개)
고용 10배(200 → 2,000명) 확대



09

III. 핵심분야

2. 핵심분야 과제선정

- ▶ **(6개 대과제)** 산업동향, 지자체 정책, 산업체 수요 등 고려, 선정
- ▶ **(27개 소과제)** 산업현장수요, 대학별혁신역량 등 고려, 인력양성과 R&D 중심 선정

에너지
신산업

대과제(3)

- 미래 에너지 효율 향상 융합인력양성 및 기술개발
- 기후변화 대응형 신재생에너지 인재양성 및 기술개발
- 에너지신산업 창업 실무인력양성

소과제
(13)

미래형
운송기기
산업

대과제(3)

- 친환경 스마트선박 핵심인력 양성 및 사업화 기술개발
- 미래지능형 모빌리티 신산업 핵심인력양성 및 융복합 기술개발
- 첨단부품·소재 핵심인력양성 및 사업화 기술개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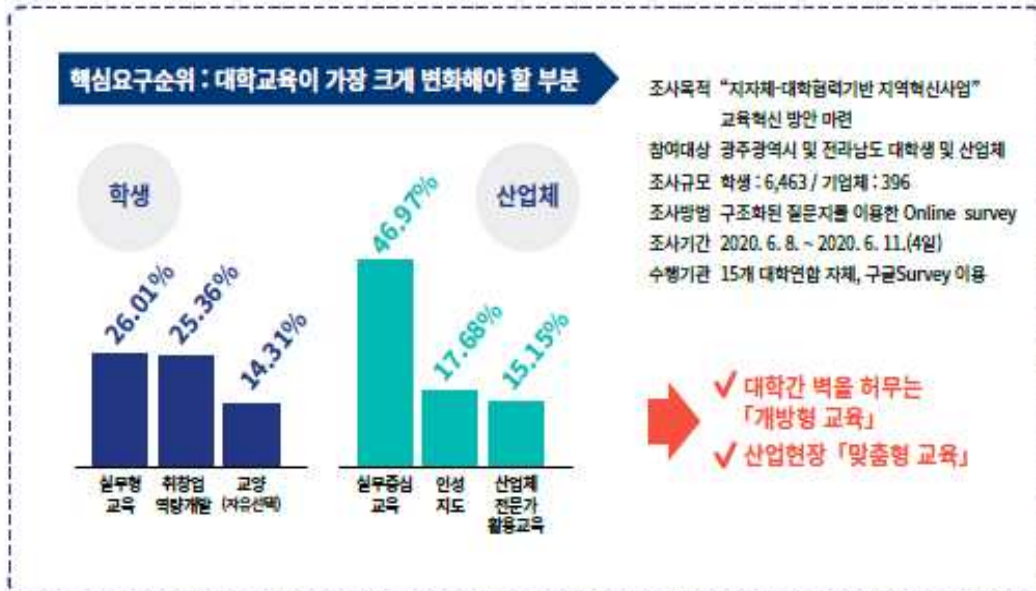
소과제
(14)

차질없는 이행으로 에너지신산업, 미래형운송기기산업의 경쟁력 강화

10

IV. 대학교육혁신

1. 수요조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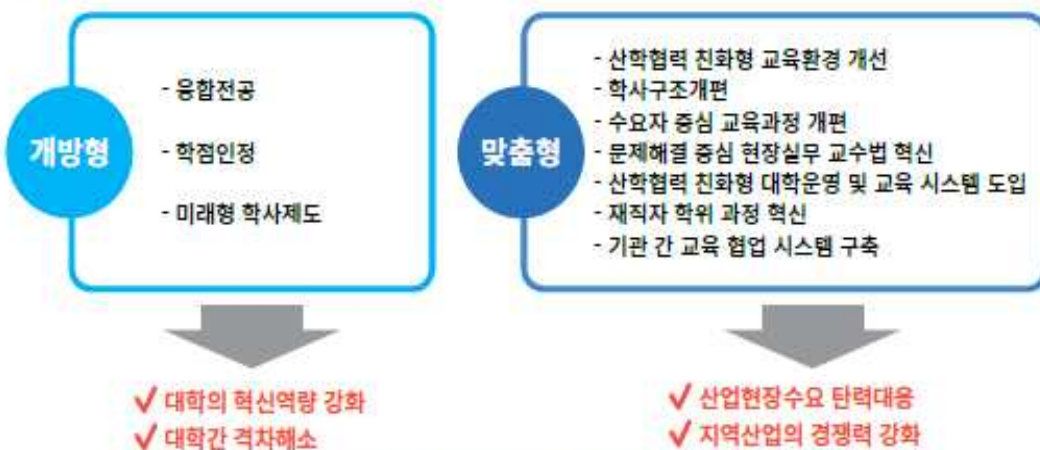


11

IV. 대학교육혁신

2. 표준교육모델

표준교육모델 : 개방형·맞춤형 10대 과제 설정



15개대학 교무처장 전체 적용 합의·서명

12

IV. 대학교육혁신

3. 교과·비교과의 변화

구분	지금	앞으로
교과	학사 구조 - 칸막이/폐쇄형 학사구조(주로 계절학기 개방)	- 개방형 학사구조로 전면개편
	전공 방식 - 일반선택으로 부전공 운영방식이 많음 - 대면(Off라인)방식의 전공운영 - 각 대학에서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강의 대학내/대학간 실력차GAP 발생 - 산업체 요구 수준에 미흡	- 플랫폼 융합전공 개설 및 개방운영 - 플랫폼LMS(on라인)에 의한 공동학과 운영 - 대학간 수준별 학점개방을 통해 대학별 실력차(GAP) 축소
	학점 개방 - 졸업학점의 7% 대학간 개방 - 2개 영역 인정(계절학기/공공기관 직무교육) - 국립대는 학점개방 인정비율이 높고, 사립대는 매우 낮음 - 2년제, 4년제 간 학점 교류 없음	- 졸업학점의 32% 대학간 개방 - 총 7개 교과영역 대학간 개방 - 융합전공, 계절학기, 현장-실습, 가상대학 학점제, 공공기관 학점제, 문제해결형 실무Project, 자유학기제
비교과 - 취업역량(영어, 자격증 등) 프로그램 대학별 단독 운영 - 창업역량 프로그램 대학별 단독 운영 - 인성지도, 고교연계 대학별 단독 운영	- 취업역량 프로그램 공동운영 - 창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공동운영 - 인성지도, 고교연계 등 프로그램 공동운영	

13

IV. 대학교육혁신

4. 가칭 「광주·전남 지역혁신플랫폼 대학」



14

IV. 대학교육혁신

5. 플랫폼 공동교육 LMS 시스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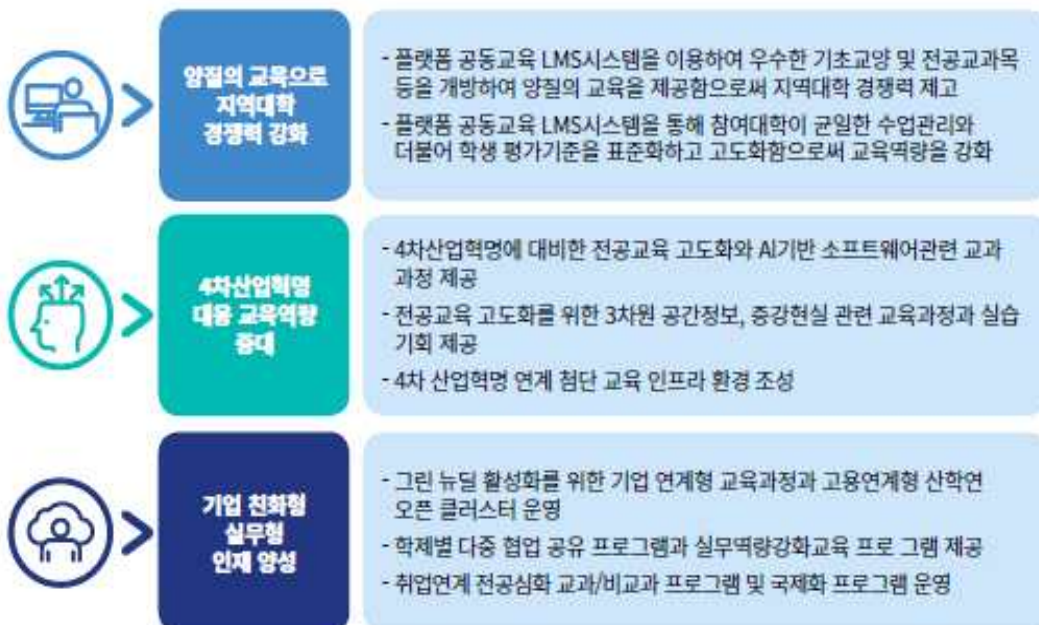
표준화된 학사·콘텐츠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



15

IV. 대학교육혁신

6. 기대효과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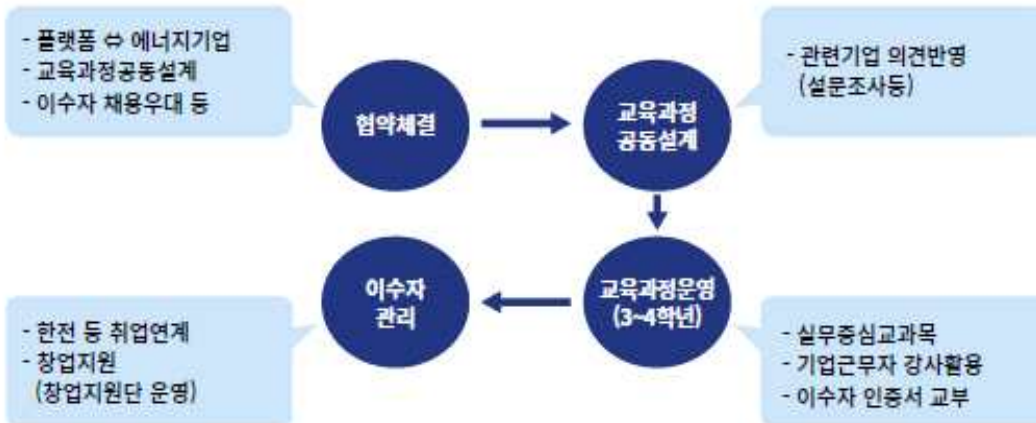
16

V. 대표사례

사례 1 핵심분야 교육혁신 협업모델

1. 에너지밸리 인력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인력양성

- 에너지밸리 입주기업(180개)은 고급기술인력을 수도권 등에서 채용
- 한전은 '22년까지 지역인재 30%채용('19년 21%) 계획이나 필요 인력확보 어려움



> 기대효과 (대학) 취업자 증가(50~100명/년), (기업) 필요인력 확보

17

V. 대표사례

사례 1 핵심분야 교육혁신 협업모델

2. 친환경스마트 선박분야 기술인력 양성

- > 세계적 환경규제에 대응, 친환경 선박으로의 전환에 따른 전문인력수요 증가
- > 수도권 인력 지방근무 기피로 전문인력채용 어려움 - 지역의 우수인력양성 필요 증대



18

V. 대표사례

사례 2 고교-대학 연계 교육프로그램 운영

- > 고교 2~3년생의 지역대학 진학을 지원·유도하여 청년인재유출 억제
- > 대학의 전문성을 활용, 처음 도입된 고교학점제 운영을 지원, 조기 정착 도모



- > 기대효과 고교졸업자의 지역대학 진학 확대 및 청년 지역정착 촉진, 대학 수학 연한 단축효과, 고교학점제 조기 정착으로 고교 공교육의 내실화

19

V. 대표사례

사례 3 청년지역정착프로그램 운영

1. 청년정착 지역체험스쿨 운영

- 대학1~2학년생에게 지역알기, 체험하기 기회 제공
- 지역경험이 있는 청년이 없는 청년에 비해 정착의사가 높음(군형위조사, 2019)
- 정규교과목, '지역알기+지역체험하기+체험나누기'로 구성·운영



- > 기대효과 대학생 지역정착의지 제고, 플랫폼대학 교육 참여 유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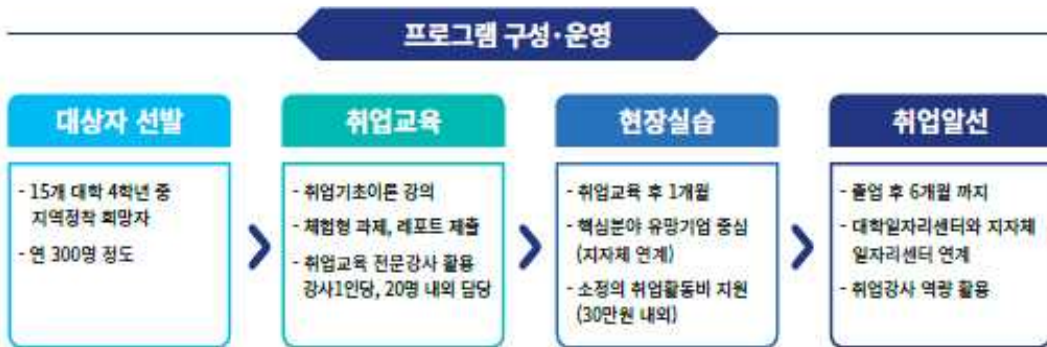
20

V. 대표사례

사례 3 청년지역정착프로그램 운영

2. 청년정착지원 취업패키지 스킴

- 플랫폼 대학 교육과정 미이수 대학 4학년생 중 지역정착 희망자의 지역기업취업 집중 지원 |
- 비교과인 기존의 대학 취업교육과 현장실습을 묶어 정규교과(9~12학점)로 운영, 대상자 참여 적극 유도



> 기대효과 지역정착 희망 4학년생의 지역취업 확대, 핵심분야 학과 1~4학년생 지역정착지원체계 완성

21

마무리

광주·전남 지역혁신플랫폼의 성공은 「네트워크」에 달려있다





감사합니다!

